

2023-1 INTERIOR ARCHITECTURE GRADUATION EXHIBITION THEME

MBTI

2023-1학기 졸업전시의 주제는 MBTI이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자기보고 형식의 성격유형 검사로,

외향(E)/내향(I), 감각(S)/직관(N), 사고(T)/감정(F), 판단(J)/인식(P) 과 같은 선호 경향의 조합으로 16가지 성격유형을 도출한다.

MBTI

16개의 유형은 각각 특징적인 행동패턴을 보이며, 주변의 환경과 공간에 대해서도 유형 별로 독특한 반응과 경험을 보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I 성격유형은 어떤 크기와 밝기의 공간을 선호할까.

S와 N은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르게 보고 이용할까.

공감능력이 발달한 F의 이타적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혹은, I와 E가 함께 생활한다면 어떤 완충공간을 만들어야할까.

J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P가 지루해하지 않을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MBTI

인간의 성격유형이 아니라 공간의 성격유형도 같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

외향적인 공간, 내향적인 공간은 무엇일까.

작은 사물의 관찰을 종합하여 전체를 이해하는 공간, 아니며 전체의 구성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이성적인 공간, 감성적인 공간은 어떤 것일까.

MBTI

MBTI 검사는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성격유형 검사이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에도 시기 별로 혈액형, 별자리, 띠, 사주, 궁합 등이 유행했고, 이러한 검사방법을 동원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내면을 이해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존재했다.

이러한 성향은 문화권마다 차이를 보일까.

사실과 가치판단의 근거를 개인에 두는 문화와 타인, 혹은 집단에 두는 문화권에서 건축과 건축공간은 어떻게 다르게 진화해 왔을까.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MBTI

MBTI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갈래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전시하여 서로 소통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실내건축학과 졸업전시의 목적이다.